

한국타이어, 3/4분기 실적 부진

한국타이어의 3/4분기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.

11월6일 공시에 따르면, 한국타이어의 3/4분기 매출은 52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.9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00억4000만원으로 27.4%, 순이익은 444억원으로 16.1%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종근당 역시 고전했는데 3/4분기 매출은 584억원으로 3.3%,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34.3%, 순이익은 48억원으로 14.8% 각각 감소했다.

디피아이로부터 6월1일 인적분할된 노루페인트의 매출은 3/4분기 630억원으로 8.2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9억원으로 117.5% 폭증했으나 순이익은 23억원으로 34.9% 감소했다.

<화학저널 2006/11/06>